

2023. 6. 23.(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2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운영·관리)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운영)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2133-7640
	건축디자인혁신팀장	최 훈	2133-7609
	담 당 자	김선규·곽지연	2133-7631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2133-7090
	건축계획팀장	최홍규	2133-7108
	담 당 자	조미리·엄주호	2133-7114
사진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쪽수 : 8쪽	관련 누리집	https://project.seoul.go.kr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서울시, 민간 디자인혁신 확산 마중물이 될 18곳 후보지 선정결과 공개

- 4.20~5.19. 1달간 공모 진행·다양한 형태의 디자인과 구조, 용도 등을 담은 25개 제안서 접수
- 평가 주안점으로 혁신디자인 발전가능성, 디자인 컨셉, 장소성, 파급성 등 종합 고려
- 선정된 후보지는 시 정책방향 공유 및 창의디자인(안) 기획 위한 민관 합동워크숍 개최
- 최종 시범사업 선정될 경우, 용적률 완화, 건폐율 배제, 행정절차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가 민간분야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관련 후보지로 1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후보지는 창의혁신디자인 완성도, 제안서 보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선정’과 ‘보완이 필요한 선정’으로 구분되며, 18곳 후보지 중 ‘선정’은 10곳, ‘보완이 필요한 선정’은 8곳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의 일환으로 민간분야 건축물 대상 디자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마련했다.

「창의·혁신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건축 분야로 확대해 서울시 혁신 디자인 정책 방향과 기준을 실제 민간사업에 반영, 현실화하는 최초의 사업이자 공모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건축 혁신 디자인 유도·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시에서는 현재 공공분야에서의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①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②제2세종문화회관 조성사업, ③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구(舊) 성동구치소), ④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⑤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이에 시는, 지난 4월 20일(목)부터 5월 19일(금)까지 1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25개의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과 구조, 용도, 위치와 면적을 갖춘 제안서를 접수했다.

- 자치구별 : 강남구 6, 종로구·성동구 각 4, 용산구·중구 각 3, 강동구 2, 송파·마포·영등포 각 1
- 용도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 대지면적 : 최소 324㎡ ~ 최대 48,837㎡

□ 시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는 도시건축 디자인의 공정성과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정위원회(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별도로 편성했다. 서울총괄건축가를 위원장으로 한 선정위원회는 서울시 도시, 건축을 총괄하고 있는 실·국장 공무원 3명과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인 외부 전문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 서울시 총괄건축가 :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수립, 주요 사업의 기획 및 기본 설계, 사업시행에 대한 사업 자문
 - 내부 위원 : 주택정책실장(건축위원회 위원), 도시계획국장(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미래공간기획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외부 전문위원 : 마강래(중앙대 교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노승범(한양대 교수, 건축위원회 위원), 김지엽(성균관대 교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시는 이러한 위원구성을 통해 시범사업 선정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향후 다양한 심의과정에서의 디자인 왜곡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평가 주안점은 구체적인 건축계획(높이, 용적률, 용도 등), 설계도면 등이 없는 제안서 평가임을 고려해, 후보지의 장소적 특성, 디자인 컨셉, 상징성, 혁신디자인 여부 및 발전 가능성, 사업 파급성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
- 세부적으로는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29개 항목과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제안서 적정 여부를 평가했으며, 7명 위원들의 합의 방식으로 「선정」, 「보완이 필요한 선정」, 「미선정」 등 3가지 유형으로 의결했다.
- 선정된 주요 후보지로는 ‘선유도원’ * (영등포구 양평동4가), ‘테라리움 청담’ * (강남구 청담동), ‘도화서길 업무시설’ * (종로구 수송동), ‘삼성동 북마크’ * (강남구 삼성동) 등이다.
- 선유도원은 외관을 관통하는 수직적 자연 요소(그린테라스)와 열린 저층부 공간, LED영상을 통한 디지털 캔버스 등의 디자인 요소를 인정받았다.
 - 테라리움 청담은 하부의 다양한 공개공지 제공과 중층의 스카이 가든 등 독창적 디자인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 도화서길 업무시설은 백자의 은은한 질감, 주변 지역의 전통역사 맥락을 고려한 외부 디자인과 상부의 스카이 갤러리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받았다.
- 삼성동 북마크는 작은 대지에 독창적 디자인을 접목하여, 외부에서 옥상 공공 조망공간까지 바로 이어지는 전망 엘리베이터와 건물을 통과하는 1층 공공 보행 통로의 공공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명칭은 민간사업자가 붙인 대상지 명칭임.

□ 시는,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제안서를 토대로 향후 두 번의 민·관 합동 워크숍을 통해 서울 창의혁신 디자인 정책 방향 공유와 혁신 디자인 적용을 위한 기획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1차 합동워크숍 개최 예정일 : 7. 4.(화) 15:00 ~ 17:30(장소 별도 안내)

○ 2차 합동워크숍 개최 예정일 : 7.26.(수) 09:00 ~ 11:30(장소 별도 안내)

□ 워크숍 이후에는 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기획 디자인(안)을 제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디자인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용적률 완화, 건폐율 배제, 신속행정 지원, 사업추진 자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신진 건축가부터 세계 유수 건축가까지 다양한 건축가들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 평가위원을 맡게되어 영광이다”며, “제안서 평가임을 감안해 현재 창의혁신 디자인 수준뿐만 아니라, 향후 혁신 디자인 발전 가능성에도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 시는 이번 공모 이후에도 민간분야 디자인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가 공모 또는 수시 접수 등 추가 공모계획과 정비사업 등 기존에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 확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하반기에 조속히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부문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이 건축가의 위상 제고와 서울의 얼굴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워크숍과 대상지 선정, 사업추진까지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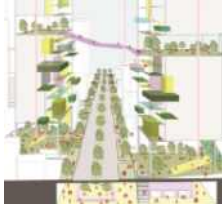
‘선정’ 10개소

연번	위치 및 용도	대표이미지	평가 의견
1	영등포구 양평동4가 복합시설 (선유도원)		- 한강변에 트위스트된 형태의 독특한 건축 제안으로 도시의 경관적인 측면에서 상징성
2	강남구 청담동 업무시설 (테라리움 청담)		- 중층부에 제안된 독창적인 스카이가든과 공원형의 실내 테라리움 조성
3	강남구 역삼동 복합개발사업		- 한국의 산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기존에 없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였으며, 획일적 도시공간에 역동적 스카이라인을 제공
4	종로구 수송동 업무시설 (도화서길 업무시설)		- 역사문화지역의 맥락에 어울리는 건축 형태를 제안하여, 백자의 은은한 질감 등 한국적 디자인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5	종로구 관철동 복합업무시설		- 외부 수직면을 관통하는 녹색공간 조성과 저층부 시민 휴게 복합공간 제공에서 공공성 인정

연번	위치 및 용도	대표이미지	평가 의견
6	성동구 성수동2가 복합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형과 원형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심미성 높은 디자인과 플랫폼 구조를 이용한 새로운 업무공간에 대한 창의성이 돋보임 - 기존 디자인과 차별성 및 공공성 확보 필요
7	강남구 청담동 주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부 피라미드형 정원과 녹지의 수직적 연속성을 표현
8	송파구 문정동 공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형의 개방형 테라스 디자인과 지상층의 보행로를 연결하는 공원화된 공개공지 제공이 우수
9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공간을 활용한 나선형의 심미적 디자인 제안 - 보다 절제되고, 심미성이 뛰어난 디자인 제안 필요
10	강남구 역삼동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역 주변 건축물들의 옥상공간을 연계하여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 참신 - 실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붙임 2.

'보완이 필요한 선정' 8개소

연번	위치 및 용도	대표이미지	평가 의견
1	강남구 삼성동 업무시설 (북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고 긴 대지에 건축물 입면을 새롭게 해석하여 감성에 기여하는 북마크(책갈피) 디자인으로 공공보행통로 및 개방형 옥상 조망 공간을 계획
2	강동구 천호동 도시형생활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에 위치한 공개공지로 나선형의 식물 산책로를 계획 - 컨셉에 대한 예시안으로 구체적 디자인안 추가 검토 필요
3	중구 장충동2가 음식문화예술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부 녹지, 옥상 수공간, 남산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아트 공원 등을 계획 - 기존 디자인과 차별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4	용산구 한남동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정공간, 지상층 녹지공간, 최상부 2개층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계획 - 창의혁신디자인 보완 필요
5	마포구 망원동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을 모티브로 다양하게 결합한 디자인으로 저층부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수공간, 녹지공간 등을 계획 - 공중정원 브릿지가 통경축을 훼손하는 등 디자인 보완 필요
6	성동구 송정동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부 공개공지를 통해 송정방방길까지 자유로운 통행, 중랑천 조망 발코니 등을 계획 - 기존 디자인과 차별성 제시 필요
7	종로구 효제동 복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저층부 및 상층부에 걸친 수직형 녹지공간, / 종로5가역, 광장시장과 연결을 계획 - 향후 워크숍에서 디자인 구체화 필요
8	용산구 이태원동 호텔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부 공유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 용산공원과 오버브릿지로 연결을 계획 - 향후 워크숍에서 디자인 구체화 필요